

# 영광군, 2022년도 농업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 당면 현안사업·2023년 신규사업 안내 등 공유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군수 주재로 지역농협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농업관련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농업 예산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원예분야 확대 지원 ▲주

요농산물 최저가격 내실화 ▲찰벼 장려금 지원 ▲벼 수매품종 다양화 등 농가 경영비 절감과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 필요 등이 건의됐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은 농업 분야 5개, 원예분야 6개, 시범사업 23개, 농협협력사업 11개를 포함한 4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농직불금 인상(1인 36만 원 추가지급) ▲중·대형 맞춤형농기계 지원(농업인별 5년 이내 최대 1천500만 원 지원) ▲벼 농자재쿠폰(15만 원/ha→20만 원/ha) 단가 상향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 ▲치유농업 연구 개발 등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올해 농자재값 상승, 쌀값 하락 등 농업소득은 줄고

물가는 상승하는 어려운 현실에 농업예산 증액을 통해 영광군 농업발전을 모색하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농업인 맞춤형 시책을 통해 농업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2022년 공익직불금은 7천638명, 243억 7천 600만 원으로 쌀값 하락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 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농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 화순군-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협약 홍수조절지 공간 활용·관리 상호 협력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군 홍수조절지(이양면 소재) 수변공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화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군 홍수조절지 제1조절지(79만㎡), 제2조절지(36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수시설 설치와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양 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수조절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과 생태 경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유휴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이 홍

수조절지에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협력한다.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주변 제방 꽃과 나무 식재·관리, 제1조절지 데크로드 설치·관리, 제2조절지 주민 체육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친수공간으로 발돋움하도록 화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홍수조절지는 지난 2013년 조성 당시 다목적 활용하기 위해 생태습지와 야구장, 자전거 도로 등 시설을 설치했으나 공간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 경관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운동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 장성군, 향우 방문 잇따라

장성군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북상면, 삼서면 재경향우산악회 회원 120여 명이 최근 고향 장성을 방문했다.

먼저, 북상면 향우들은 오전 11시 무렵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집결해 전남대수련원까지 이어지는 남창골 트래킹 코스를 걸었다. 수물문화관을 찾아 고향땅의 기록들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군 북상면은 1970년대 장성댐 건립으로 인해 수몰됐다. 지금의 장성호 일원이 북상면이 있던 곳이다.

삼서면 향우들은 장성호 주차장에서 모였다. 수변길을 따라서 장성호의 수려한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트래킹한 뒤 점심식사 이후에는 가을꽃 물든 황룡강을 걸었다. 저녁식사는 고향 삼서면으로 돌아와 지역 식당에서 함께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성군은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공제된 세액과 답례품의 가치를 감안하면 10만 원 기부에 13만 원 혜택을 입는 셈이다.

/유광중 기자



나주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동절기 추가접종율은 지난 16일 기준 11만6284명 중 7천905명이 접종해 도내 5개 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 6.8%를 기록 중이다. /나주시 제공

## 나주, 동절기 코로나 2가 백신 접종 확대 실시

나주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동절기 추가접종율은 지난 16일 기준 11만6284명 중 7천905명이 접종해 도내 5개 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 6.8%를 기록 중이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추가 접종 대상자는 기초접종(1·2차)을 완

료한 만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화이자 BA.4/5 등 백신도 3종으로 늘려 관내 지정 병·의원 27개소에서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자 요양원 등 거동이 불편한 감염고위험군 시설 65개소 입소 및 종사자 2240여명에 대한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개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및 보건지소(진료소) 사전예약기관 확대, 찾아가는 사전예약부스를 운영하는 등 사전 예약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서현승 보건소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가 감소돼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2가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기자

## 담양군, 제15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담빛농업관 3층 강당에서 졸업생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인 농업인대학은 우리군 주력품목인 딸기를 선택, 딸기 재배형태의 변화에 따른 수경재배과정을 선정 4월부터 딸기수경재배 과정을 개강, 36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지난 4월 18일 개강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27회, 약 108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해 성실히 참석한 33명 농업전문가를 양성, 담양군이 강한 농업군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장기간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학생장 흥

석기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흥석기 씨는 “7개월 간 농업인대학으로 영농현장에서의 현장중심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배움의 뿌듯함과 딸기 재배관리의 이론과 실천 기술을 배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 참여한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농업인대학을 성실히 수료해주신 모든 농업인들은 앞으로 담양농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우리군의 주력품목인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 관리인실 구축과 시범사업과 농가 기술지원 사업추진으로 모두 다 잘사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9년 곡성군 사립로도면 횡단력행사 수상작